

성균관대학교 제56대 총학생회 자연과학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일시 2024. 03. 11 (월) 18:00
 회의 장소 기초학문관 51318
 회 차 56 - 06
 서 기 인사운영국장 내정자 박유리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결석	자연과학대학 ○
정보통신대학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공과대학 ○
건축학과 ○	약학대학 ○	생명공학대학 ○
스포츠과학대학 ○	의과대학 ○	동아리연합회 ○

전체 단위 수: 12 (정족수: 8) / 출석 단위 수: 11



1. 단위별 사업 보고

1) 총학생회

- 가. 밝은성모안과 제휴
- 나. 해오름제 공연팀 모집 시작
- 다. 공학용 계산기 공동구매 모집 완료
- 라. 킹고패스 2탄 업로드
- 마. 롯데시네마 제휴

2) 자연과학대학

- 가. 학생회 신입국원 모집 완료

3) 정보통신대학

- 가. 정보통신대학 학생회 신입국원 모집 완료

4)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개강총회 완료
- 나. 신입생 빙고 이벤트 시작
- 다. 학생회 신입국원 모집 시작
- 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칙 발의 완료

5) 공과대학

- 가. 신입생 대상으로 공과대학 학생회 신입국원 모집 완료
- 나. 공과대학 동아리 홍보부스 진행 중

6) 건축학과

- 가. (03.08) 건축학과 개강총회 완료
- 나. (03.09) 학생회 신입국원 모집 시작

7) 약학대학

- 가. (03.04) 약학과 공동구매 진행
- 나. (03.05) 사물함 대여사업 진행
- 다. (03.10) 약학대학 상반기 운영위원회, 약학대학 학생대표자 회의 진행 완료
- 라. (03.11~) 패밀리 미션 시작



8) 생명공학대학

가. 새터 조 활성화 프로그램 시작

9) 스포츠과학대학

가. 스포츠과학대학 개강총회 준비 및 홍보 완료

10) 의과대학

가. (03.04) 의과대학 학생회칙 개정

11) 동아리연합회

가. (03.11~03.14) 홍보부스 진행

나. (03.06) 2차 신입국원 모집 완료

다. (03.07) 제2차 운영위원회의 완료

가) 회칙 개정 전동대회 상정 의결

나) 르퓏 제명 전동대회 상정 부결

다) 징계세칙 제정

라) 성불회 경고 2회 의결

마) 필로직 동아리 명칭 변경 전동대회 상정 의결

2. 논의 및 심의 안건

1) 총학생회

가. 학생회비 배분안 논의

- **총학생회장:** 이번 24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납부율이 51.38%임. 최근 2개년 동안 납부율 변화는 22년도 1학기에 48%, 22년도 2학기에 41.7%, 23년도 1학기 46.1%, 23년도 2학기에 46.1%임. 그리고 24년도 1학기에 51.3%임. 납부율은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전체로 합했을 때임. 보통 2학기에 떨어지는 추세임. 자연과학캠퍼스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해 보면, 작년에 54.5%이었는데 이번 1학기에 55.7%으로 자연과학캠퍼스도 소폭 늘었음. 중운 단위에서 학생회비 납부 독려 홍보를 도와준 덕분임

학생회비 납부 받은 것을 총학생회과 동아리연합회를 비롯해 단과대 학생회에 배분하는 것을 작년 기준과 동일하게 가지고 옴. 24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전체 납부 금액은 4,463만 원이고, 여기서 선거 비용을 한 학기마다 160만 원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전체 100%로 두었을 때, 그중 28%을 총학생회가, 9%를 동아리연합회가 가져감. 그래서 37%를 제하고 남은 68%를 다시 100%로 환산했을 때, 14.6%를 기본 배부액으로, 즉 모든 단과대가 동일하게 나눠 가지는 것임. 단과대 별로 납부한 인원수에 비례한 금액을 납부 비례액 85.4%으로 함. 학생수 비례액은 등록된 학생 수와 비례하는 금액임. 이 부분은 작년에 0%로 가져감. 기본 배부액이 전체 3,957,899원이며 납부 비례액은 23,151,001임. 총 10개 단위 존재함. 아직 중앙운영위원이 아니지만 단과대 학생회로 활동 중이므로 성균 융합원도 추가하여 계산함. 관련 자료는 사전에 받았음. 확인 필요하시면 드리겠음.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각 단과대 별로 기본 배부액은 395,790 원임. 납부 비례액을 각 단위에 배부할 때는 단위 납부 인원 전체 납부 인원을 나눈 값에 납부 비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함. 계열제 분들은 공과대학은 공학계열을 다 합쳐서 함. 자연과학대학과 생명공학대학은 3:2 비율로 함. 자연과학계열이 받는 금액에서 3:2로 나눠 실 지급액에 합침. 작년과 제작연도 동일하게 진행하여 의결하였음. 이대로 의결해도 되는지 질의. 선거비용 160만 원 제하는 것과 비율도 정하기 나름임.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는 것도 관례적이므로 바뀌도 됨. 의견 주시는 대로 반영 가능함.

- **공과대학:** 학생 수 비례액이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는지 질의.
- **총학생회장:** 수치는 의견 조율하며 바뀌야 함.



- **동아리연합회:** 우측 상단 금액 설명해 주시길 바람.
- **총학생회장:** 중앙선거관리비용임.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비로 쓰임. 늘리는 것은 학생회비가 줄어들므로 많은 논의가 필요함.
- **의과대학:** 자연과학캠퍼스와 인문사회과학캠퍼스를 따로 배분하는지 질의.
- **총학생회장:** 따로임.
- **동아리연합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 연합회는 11%로 알고 있음. 자과캠 동아리연합회는 9%인 이유를 질의.
- **총학생회장:** 관례적으로 그런 것임. 자연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가 양보해 준 결과라 생각함.
- **동아리연합회:** 코로나가 풀리며 많은 동아리들이 학교 문화에 많이 이바지한다고 생각함. 홍보부스에 관한 비용 등도 늘어남. 11%를 주장하고 싶음.
- **총학생회장:** 1~2원 정도 바뀌는 것은 감안해 주시길 바람. 동아리연합회에 11%를 배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단과대 학생회의 의견에 대해 질의.
- **정보통신대학:** 중간 수치인 10%로 하면 안 되는지 질의.
- **건축학과:** 인사캠에 경우 11%이라고 하셨는데, 총학생회 비율은 동일한지 질의.
- **동아리연합회:**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자연과학캠퍼스를 이런 면에서 통일해야 사업을 추진하고 진보된 학생 문화를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 **총학생회장:** 10%로 하는 것은 어떠할지 질의.
- **동아리연합회:** 인문사회과학캠퍼스보다 낮다는 인식 자체가 문제 될 것이라 생각함. 다른 단과대 의견도 듣고 싶음. 저희가 더 높아짐으로써
- **중앙운영위원장:** 작년 신입생 안내 책자에서 본 바로,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 홈페이지 운영도 반영되어 있음.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도 고려됐을 것이라 생각함.
- **약학대학:** 현재 지금 너무 수치로만 예산안을 변동한다고 생각함. 차이 나는 이유가 동아리 개수, 학생 수를 반영했다고 생각함. 이를 모르는 상태로 수치를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함.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함.
- **총학생회장:** 추가 등록이 지난주 금요일까지였음. 오늘 오후에 학생회비 납부율과 이에 대한 것을 전달받음. 지난주 금요일 오후 2시 자료로 진행했음. 한두 명 정도 오차가 있을 것이라 생각함. 다음 주 전학대회 안건 선정 관련하여 의결 진행할 텐데, 학생회비 안건을 다음 주에 논의하면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 생각함. 비율과 양보액 등에 대해 말을 한 후 다음 주에 의결 진행하고자 함.
- **동아리연합회:** 동아리연합회는 더 많은 학생들의 동아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



해 받는 것. 이미 적은 배분 때문에 양 캠퍼스 동아리연합회 간 활동 인원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함. 동아리들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상향을 요청드리는데 바임.

- **자연과학대학:**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자연과학캠퍼스가 같이 있는 동아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질의.
- **동아리연합회:** 별개로 운영되는 시스템.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인문사회과학캠퍼스는 더 많이, 자연과학캠퍼스 동아리는 더 적은 금액을 받는 상황이 발생함.
- **총학생회장:** 재학생 등록 인원수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는 10000명, 자연과학캠퍼스 8000명 정도임. 이 부분은 단과대와 동아리연합회가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 코로나가 풀리면서 동아리가 활성화되면서 문화적 이바지가 많다고 생각. 그러나 단과대별로 행사가 진행함. 이것도 문화에 이바지하는 것임. 이러한 것에 대해 단과대와 동아리연합회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정보통신대학:** 단과대 소속된 동아리는 활동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질의.
- **총학생회장:** 단과대 별로 상이함. 자연과학대학은 자치단체란 이름으로 학생자치에서 도움을 받으며 진행함.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 연합회가 홈페이지를 명목으로 11% 가져갔던 것 같음.
- **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의 배분액 9%와 11%의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거수하도록 하겠음.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아까 9%에서 11%로 올리는 이유는 코로나 이후 행사가 많아졌다는 점과 인문사회과학캠퍼스가 11%를 이미 하고 있어서라고 생각함. 인문사회과학캠퍼스가 11%로 하는 배경이 있을 것이라 생각함. 자연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가 11%로 변경하는 명분이 확실하면 찬성함. 그러나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가 11%이므로 자연과학캠퍼스도 11%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기권함.
- **동아리연합회:** 오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마쳐야 하는지 질의.
- **총학생회장:** 아님.
- **동아리연합회:** 좀 더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올리는 것임을 알림.
- **총학생회장:** 기권하신 분들 중 다른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브리핑하는 시간 갖고 두 가지 안 준비해서 의결 진행해도 괜찮은지 질의.
- **의과대학:** 이월금을 포함한 것인지 질의.
- **총학생회장:** 이월금액은 각자 단위별로 존재하여 예산 집행함.



2) 동아리연합회

가. 중앙동아리 행사 섭외 방안 논의

-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가 팀 레이브에 요청했다고 함. 이에 대해 총학생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중앙 동아리를 오디션이 아닌 섭외를 할 때는 동아리연합회를 거치지 않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 문화의 활성화이므로 동아리 콘택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임. 돈을 안 받는 것은 물론이며,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 드리겠음. 이런 방안으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함.
- **총학생회장:** 원래 섭외 시 바로 연락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동아리연합회가 관할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 사과드림. 동아리연합회에서 원하는 것은 중앙 동아리를 행사에 섭외할 때 동아리연합회를 거치는 것인지 질의.
- **동아리연합회:** 오디션은 해당 안 됨. 섭외는 저희를 거쳐 상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함.
- **총학생회장:** 그 부분은 동아리연합회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음.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과대도 동아리연합회의 위치를 존중하는 느낌에서 해주셨으면 함.

3. 기타 안건 및 건의 사항

1) 총학생회

가. 복지회관 시설 수요조사

- **총학생회장:** 복지회관에 서점이 빠짐. 매출이 안 나와서임. 모두 온라인이나 PDF로 봄. 대학교 내 서점 특성상 개강 직후만 매출이 존재하므로 철수하게 됨. 학교 측 요청으로 4월까지 운영함. 6월에 새롭게 입찰해 새로운 업체를 넣을 것임. 업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함. 총학생회 집행부 회의에서는 대부분 식당을 언급함. 식당은 구매팀에서 안된다고 함. 다른 의견을 내주시길 바램. 총학생회 집행부 회의에서는 의견으로 수선을 같이하는 세탁소가 나옴.



- **동아리연합회:** 대량으로 인쇄하는 시설이 학교에 부족함. 대량으로 인쇄 가능한 시설을 부탁드립니다.
- **총학생회장:** 삼성학술정보관에 있음. 공대에 복사실 존재함. 구매팀과 미팅했을 때 구매팀이 원하는 방향은 학교 내에 서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임. 평소에는 다르게 운영하다가 개강 시즌에는 팝업스토어의 개념으로 서점을 운영하는 의견이 어떤지 질의.
- **동아리연합회:** 시즌제로 책과 문화 공간을 결합한 라운지로, 평소에 쓸 수 있는 공간을 제안 드림. 책과 휴식 공간을 결합한 공간을 말함.
- **총학생회장:** 수면 카페와 연합해 하는 것도 말씀드렸음. 교직원 등이 다 쓰는 공간이므로 구매팀에서 회의적인 의견. 제 생각으로는 휴식 공간으로 하고 팝업스토어를 열 때는 삼성학술정보관 1층처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휴식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 학교에서 회의적임.
- **동아리연합회:** 어떤 휴식 공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 생각함. 공간에 심미적인 구성에 집중하여 책을 읽을 수 있는 라운지를 말씀드리고 싶음. 즉, 인테리어에 중점을 둔 라운지에 대해 말씀드림.
- **총학생회장:** 삼성학술정보관과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질의.
- **동아리연합회:** 책을 판매하는 것임.
- **총학생회장:** 구매팀에 전달해 보도록 하겠음.
- **의과대학:** 학교 굿즈 판매 가게가 존재하는지 질의.
- **총학생회장:** 복지회관 3층에 기념품 가게가 존재함.
- **동아리연합회:** 삼성학술정보관은 음악 규제함. 복지회관은 음악과 결합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떤지 질의.
- **총학생회장:** 좋다고 답변함. 가능한 업체가 복지회관에 들어올 수 있는지 우려됨.
- **동아리연합회:** 스타필드에 LP 카페가 존재함. 음악 감상에 대한 수요 늘고 있으며 업체도 늘어남. 이러한 의견을 구매팀에 전달해 주시면 좋겠음.
- **생명공학대학:** 다이소 같은 생필품 판매 업체를 제안 드림.
- **총학생회장:** 제안해 보겠음.
- **동아리연합회:** 이것은 업체의 완벽한 권한인지, 학교의 브랜딩에 포함되는지 질의.
- **총학생회장:** 학생 공간으로 쓸 수 없는지 여쭙어봤음. 사업을 하려면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공간이 사업 공간으로 신고되어 있어 업체가 들어와야 함. 업체가 들어오는 방식은 구매팀에서 입찰을 하여 여러 업체 중 한 업체를 선정하



여 진행함.

- **자연과학대학:** 은행이 하나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질의함.
- **총학생회장:** 안될 것 같음. 이미 우리은행이 있음.
- **의과대학:** 헌혈의 집도 좋다고 생각함. 사업성은 우려되지만 공익성이 충족된다고 생각함.
- **총학생회장:** 취지는 좋은 것 같음. 그러나 헌혈차에 방문하는 인원도 감소하는 추세임.
- **동아리연합회:** 약국 제안 드림.
- **총학생회장:** 학교측과 논의하겠음.

나. 해오름제 고사 참여 공지

- **총학생회장:** 3월 29일에 해오름제 진행함. 관례적으로 중앙운영위원분들이 고사를 지냄. 제56대 중앙운영위원회에도 요청드릴. 15시에 가능하신 분 질의. 행사 참가확인서 발급됨.
- **자연과학대학:** 고사 장소가 어디인 지 질의.
- **총학생회장:** 해오름제 무대 위임.
- **생명공학대학:** 소요 시간 질의.
- **총학생회장:** 타임라인은 15분임. 실제로는 5분 안에 끝남.
- **건축학과:** 따로 착용해야 하는 복장이 있는지 질의.
- **총학생회장:** 깔끔한 무채색 복장임.
- **공과대학:** 국장단을 올려도 되는지 질의.
- **총학생회장:** 필수적으로 참석 안 하셔도 된다고 답변.

다. 동문멘토링 관련 사업 요청

- **사회교류국장 내정자:** 총학생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동문멘토링 사업임. 확정된 명칭이 아니며 가제임. 이 사업에 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요청할 것이 있어 말씀드릴. 먼저 설명을 드리면, 동문 멘토를 선정하고 각 단과대의 멘티들이 팀으로 활동하거나 강연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행사임. 단과대에서 자체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단과대가 있는지 질의.
- 세 단과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인문사회과학캠퍼스는 매년 진행 중임. 자연과학캠퍼스도 학우들에게 진로 쪽으로 도움 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희망함. 작년 총학생회도 동문멘토링 사업을 진행함. 작년과 달라진 점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요



청드리는 것임. 왜냐하면 작년에 총학생회에서 멘토를 모집하고 동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각 대학에 전문적인 배경이 부족함. 그러므로 각 대학에서 걸맞은 멘토를 구해주는 것을 요청드림. 총학생회에서 큰 지원은 힘들지만 일부 금액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드림. 두 가지 방향성이 있음. 첫 번째로, 멘토가 주관하는 멘티를 6명 모으고, 그 멘티와 멘토들이 연중으로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계획서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임. 두 번째 방안은 20명 정도 멘티를 모아 멘토가 강연을 진행하는 것임. 이에 대한 피드백, 요구사항이 있다면 총학생회장님께 말씀드리길 요청드림. 멘토 15명 생각 중임. 대학마다 인원이 상이하므로 공과대학 같은 제일 많은 단위에는 3명, 스포츠과학대학 같은 작은 단위에는 1명의 멘토로 진행하고자 함.

말씀드린 금액은 멘토 한 명당 30만 원 지원할 예정임. 비용 처리는 사진 등 그때 사용한 양식으로 받고자 함. 궁금하신 점 질의 바람.

- **의과대학:** 멘토링이라는 것이 업계에 계신 분들과 진로 컨설팅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
- **사회교류국장 내정자:**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취업하신 분들도 부르셔도 좋음. 가까이서 진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총학생회장:** 의과대학, 약학대학이 특수한 과다 보니, 동문이 잘 되어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다른 과는 졸업하는 순간 교류가 힘들어진다고 느낌. 이를 이어주는 것을 단과대 차원에서 진행하면 니즈를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함. 총학에서 진행하면 이에 미흡할 것임. 단과대 별로 학우분들께 복지사업을 하는 것을 총학생회가 비용 부담을 하려고 함.
- **공과대학:** 취업 동아리와 큰 차이점이 없어 보임.
- **사회교류국장 내정자:** 멘토링이라는 사업 자체는 여러 단체에서 많이 진행함.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 등 학우들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게 학우분들께 유의미할 것이며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
- **총학생회장:** 지금 동문 사업이 여러 부서로 펼쳐져 있음. 총학이 중심 잡아서 모으려는 첫 발걸음으로 생각됨.
- **생명공학대학:** 지원금 30만 원이라 말씀하셨는데, 활동비인지 멘토 섭외비에 대한 지원인지 질의함.
- **사회교류국장 내정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과대의 자율임. 작년 예시로 장소 대여비, 커피 가격, 밥 등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드릴 것임.

멘토에게 증정하는 선물 등으로 증정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함.

- **총학생회장:** 활동비로 사용하시거나 멘토를 강연식으로 초청하고 싶으면 강연에 대한 운영비로 하셔도 좋음.
- **사회교류국장 내정자:** 많이 바쁘실 시기일 텐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들 학과에서 아시는 분 많을 것이라 생각함. 각 단과대 회장단들께서 멘토들을 가까이서 모집할 것이라 생각. 규모가 크지 않아도 되니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람.
- **총학생회장:** 엄청 거창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내용을 얻을 수 있도록 멘토를 데려오시거나 멘토와 학우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가져도 무방함. 가볍게 동문과 소통하는 느낌으로 사업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길 바람.
- **정보통신대학:** 각 단과대에서 해야 할 일이 멘토 모집인지 질의.
- **사회교류국장 내정자:** 그렇다고 답함. 멘토를 각 대학 숫자에 맞게 모집해 주시길 바람.
- **약학대학:** 멘토를 모집하는 것이 자신의 단과대에서만 하는 것인지 질의.
- **사회교류국장 내정자:** 사업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각 대학에서 전문성 있게 멘토를 모셔오길 바라는 것이었음. 멘티도 각 대학에 속한 분을 데려오면 좋겠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제한하지 않고자 함.
- **총학생회장:**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공과대학 선배님이면 공과대학 수요가 많을 것이라 공과대학 멘티로 구성하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함.
- **자연과학대학:** 멘티도 단과대에서 모집해야 하는지 질의.
- **사회교류국장 내정자:** 멘토 수합이 되는대로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홍보 공간을 통해 멘토에 대한 설명 후 멘티 모집은 총학에서 진행할 예정. 추가적으로 멘토 모집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함. 총학생회에서도 일괄적으로 신청받고 각 단과대에 전달 드릴 예정임.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멘토링에 대한 일정에 대해 질의.
- **사회교류국장 내정자:** 4월 중으로 멘토 모집, 5월 중 시작 예정임. 천천히 시작 하셔도 될 만큼 기간을 넉넉히 준비 중임.
- **약학대학:** 저희 학과에 과 동문 선배를 초청하여 40~50명가량의 단과대 학생들 모집하여 강당에서 강연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함. 기존 프로그램이 있어도 섭외를 다른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
- **총학생회장:** 각 단과대 별로 잘 되어있는 단과대는 한정적임. 이러한 단과대들은 다른 단과대와 차이를 늘려야 함. 이미 잘 되어있는 단과대가 의과대학, 약학대



학 제외하고 있는지 질의.

- **사회교류국장 내정자:** 저희가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지 질의. 바로 판단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함. 총학생회장 통해서 의사를 다시 여쭙어보겠음.

총학생회장	정영기
부총학생회장	이현진
자연과학대학	나재원
정보통신대학	송승현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전형준
공과대학	나성현
건축학과	최현재
약학대학	이동규
생명공학대학	손민우
스포츠과학대학	김재경
의과대학	신현승
동아리연합회	문정호

상기 회의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03월 16일

